

200자 안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

김형균 엮음

발달된 현대과학 문명으로도 풀지 못한 놀라운 실화들을 모았다. 공포의 블랙홀, 신비한 아틀란티스 제국, 잉카제국, 피라미드 등 고대 초기문명에서부터, 염력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사람, 손가락으로 물체를 보는 사람, 죽은 후 다시 태어난 사람 등 최근의 일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수록,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탐구정신을 일깨워준다.

동쪽나라 / A5 / 240면 / 3000원

3分間 비즈니스 체크

三井物産 홍보실 지음 / 한국산업훈련연구소 옮김

1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三井物産이 젊은 사원들의 비즈니스를 높일 목적에서 인력개발의 축적된 노하우를 모아 만든 책이다. '상사라도 겁내지 말고 반론을 제기하라' '우선 결론부터, 이유나 배경설명은 나중에' '트러블이야말로 발전의 도약대가 된다' 등 체험에서 나온 실용가치가 높은 어드바이스를 중심으로 수록. 시간관리,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셀러리맨들에게 도움을 준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20면 / 4000원

그 새는 항상 아침에 돌아온다

조혜경 지음

「여성동아」에 장편 「우단의자가 있는 읍」으로 당선, 문단데뷔한 작가의 신작장편소설. 결혼을 앞둔 은호가 12년전 요양차 머물렀던 충청도의 외진 산골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자신의 옛애인이었던 하두원을 만나 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미완인 채로 남아있던 옛사랑에 대한 환상을 말끔하게 정리한다는 줄거리.

화평사 / A5신 / 332면 / 4000원

흑장미

한준길 지음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수그러들기 미없이 증가일로에 걷고 있는 천형의 ADIS. 이 책은 ADIS가 어떻게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무분별한 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 사회고발 소설. ADIS의 박멸을 위해 인체 실험을 과감히 도입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자못 충격적이다.

웅성출판 / A5신 / 302면 / 4000원

종교교육이론

존 실리 지음 / 강돈구, 박진원 옮김

종교교육의 중요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다루고 있는 입문서. 종교교육의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주장도 결론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특정 이론 또는 사상들이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하려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특징적. 제7장에는 이 분야의 '추천도서'들을 정리해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광사 / A5신 / 176면 / 4000원

실록 智異山

백선엽 지음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는가 하면 이병주의 「지리산」이 있는 것처럼 이태의 「남부군」이 있는가 하면 백선엽의 「실록 지리산」이 있다. 이 책은 '전선의 영웅'이었던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지리산 공비토벌과 4·3 사태, 여순반란사건, 거창사건 등을 증언한 다큐멘터리 증언록.

고려원 / A5신 / 380면 / 5000원

한일 비즈니스 성공비결

정승일 지음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세일즈매너, 상담기법, 화법 등 일본과의 비즈니스 성공에 필요한 지식을 한·일어 대역으로 내놓은 책. 일본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일본인의 의식구조까지를 엿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저자는 "일본인과의 비즈니스에 사용해야 할 일본어로 정립된 책"이라고 의의를 단다.

삶과꿈 / A5신 / 256면 / 5000원

요런 건 모를걸?

비키 코브, 캐시 달링 지음 / 권국성 옮김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 및 법칙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어린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과학도서. 설탕이 물 위에 뜰 수 있고, 조리로 물을 받을 수 있는 등 과학의 숨은 비밀을 파헤쳐간다. 현재 과학·수학 분야 등의 책에 삽화와 만화를 그리는 최달수씨가 그림을 그려 이해를 돕는다.

진선출판사 / A5신 / 144면 / 3000원

북한경제론

왕의각 지음

최근 들어 북한과의 교역이 가시화되는 가

운데 남북한 경제협력의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책. 남북한 경제의 時系列자료를 수집, 감정 또는 재구성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시대별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남북한 경제의 현황과 비교'란 부제가 달려 있다.

나남 / A5신 / 384면 / 8500원

기죽이지 말라구요

정희경 지음

오랜 일선 교육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교육에세이집. 저자의 회갑기념에세이집이기도 해 의의를 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이대로 안된다'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젠 제자리로 돌아가자' '시한 속의 너와 나'의 5부로 나눠 체험적 에피소드와 제언들을 들려준다.

문학세계사 / A5신 / 318면 / 4500원

장미빛 인생

김채원 지음

「초록빛 모자」 「봄의 幻」 등으로 낮익은 작가의 콩트집. "연한 꽃머리가 그려진 흰 접시는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어 잘 닦고 다시 뜨거운 물로 헹구어 깨끗한 마른 행겔으로 정성들여 닦아놓은 것임이 틀림없다"라는 식탁풍경 묘사와 같이 간결하고 섬세한 문체로 포착한 생의 미묘한 파장들을 34편의 글 속에 담았다.

작가정신 / A5신 / 218면 / 4000원

욕망을 나르는 수레

곽봉수 지음

전남대 문리대 교수를 거쳐 호남대 학장을 끝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저자가 노년의 여유 있고 정감어린 필치로 쓴 에세이 모음. '고물상' '사람의 지혜' '경로증' '건강과 도수체조' '주례, 이젠 절대로!' '벼랑에 선 늙음' 등 무심했던 일상의 자잘한 것들에서 문득 느껴지는 감사, 삶의 황혼기에 돌연 찾아온 애잔한 감상 등을 유머있는 문체에 실어 들려준다.

규장각 / A5신 / 208면 / 3600원

자녀의 재능은 부모가 키운다

조안 F. 스머트니 외 지음 / 노혜숙 옮김

책임감 있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강한 정신력과 튼튼한 육체를 키우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활동을 아이에게 제공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아이의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과 아이의 재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요령을 제시한 책.

현암사 / A5신 / 292면 / 4500원

계간지

현대시사상(1992년 여름)

[시] 정찬경 / 이승훈 / 박상배 / 조원규 / 김신용 / 박순업 / 이만근 / 노혜경

[해외시] 니까노르 빠라 : 「선언문낭독」 외 9편(전기순 옮김) ▲반시, 새로운 순수시(전기순)

[서평] ▲'도시시'의 장르 개념과 '일상성'에 관하여 : 김준오 평론집 「도시시와 해체시」(이경호) ▲이태올로지 저공비행 : 원구식 시집 「먼지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이형우) ▲청춘의 부담스러움과 메마름의 시 : 허순위 시집 「말라가는 희망」(김경수)

[기획] 일본 현대시 : 타나카와 슌타로의 20인(김광림 옮김) ▲전후시의 전방(시마오카 아시타, 권택명 옮김) ▲탄생의 소리를 울린 전후시(권택명 옮김) ▲시에 있어서 '기술'이란 무엇인가(대담 : 사사키 미키로우 / 아라카와 요지 / 이나가와 호우진, 박현서 옮김)

[논문] 텍스트, 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윤호병)

[시론] 난투 속의 시(위르겐 테오발디, 박상배, 이유선 옮김)

고려원 / A5신 / 212면 / 3500원

문학과 사회(1992년 여름)

[권두발제] 광기의 역사와 역사의 광기(김진석)

[연속기획] 지금 문학이란 무엇인가Ⅲ

▲문학 텍스트의 구조와 탈구조(박성찬) ▲수사적 언어와 해체구조의 논리(장경렬)

[테마서평] ▲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한재영) ▲과학사·환경·신비주의(송상용)

[소설] 김향숙 / 신경숙 / 최윤 / 채영주

[시] 김명인 / 김광규 / 박남철 / 조은 / 김태동

[오늘의 한국문학] ▲총평 : 문학공간, 1992년 여름(편집동인) ▲우리 문학과 초월성의 문제(이동하) ▲문학의 세대적 변별성과 비평의 과제(서준섭)

[비평·논문] ▲전환기의 풍경=공산권 붕괴 이후의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속간사업(정문길) ▲불을 안고 강 건너기(황도경)

문학과지성사 / A5신 / 361면 / 5000원

역사비평(1992년 여름)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특집]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이권침탈(김정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북진통일'과 예측의 이중주(리영희) ▲1950년대의 경제협정-원조와 종속의 메카니즘(김양화)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

정의 허구성(조국)

현암사 / A5신 / 292면 / 4500원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을 부르시면

그는 일을 무척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합니다.

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의 태도는 겸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일을 깊이
이해하고 배우려는 열성에
그의 눈과 손발에선 불꽃이 튀입니다.

그의 구두는 3, 4 개월을 못 넘겨
옆구리가 터져나갈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컴피아트에서
일과 함께 12년째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배짱이 세며
손발을 척척 맞추는 힘이 뛰어납니다.
순발력과 추진력에 책임감을 더하여
맡은 일을 약속대로
시원시원하게 끝내는 장기가
그의 자랑입니다.

최병윤 부장을 부르시면
그는 곧 귀하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컴피아트가 하는 일

- 교과서·참고서, 어학교재(러시아어 포함), 사전, 단행본 조판편집
- 편집입력기 15대, 구문 전용입력기 2대, 수동사식기 1대
- 혼용(국·한·구문) 출력기 1대, 구문 전용출력기 1대
- 컴버전 전문, 필름 출력
- Text 디자인, 레이아웃, 레터링, 표지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컬러 화상처리시스템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

[시론] 이제는 개혁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이부영)
[제언] '소비' 사회주의를 재창한다(장두환)
[역비논단] 장면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역할(여현덕)
[해외연구] 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自治'와 '共和正體'(유병호)
[서평] 민족서사시의 발굴-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장덕순)

[특별연구]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강인철)

[자료발굴] 1942년에 김일성이 육필로 쓴 항일연구 제1로군 요약

[도적의 사회사] ▲역사 속의 홍길동과 소설 속의 홍길동(임형택) ▲장길산의 '전설'과 '史實'의 변증(홍순민) ▲활빈당-의적에서의 병으로(배향섭) ▲1960, 70년대 나의 체험적 도적론(임승남)

[기획] ①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맞선 라이벌 ▲이승만 대 조봉암·신익희(오유석) ▲박정희 대 김대중(고성국) ▲박정희 대 윤보선(한석태) ▲1987년 대선과 1노 3김(정해구)

[기획] ②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최초의 여류소설가 김명순(송호숙) ▲최초의 여류서양화가 나혜석(김진송) ▲최초의 근대무용가 최승희(김채현)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노동은)

[내가 찾은 자료] 「폐허」 에스페란토 표지 시와 中野重治의 「비내리는 품천역」(김윤식)

[조선시대 화가들의 삶과 예술] 현재 심사정(유홍준)

[인물연구] 이완용의 곡예-친미·친로에서 친일로(이이화)

[바로 알아 우리 역사] ▲홍종우 재조명-왜 김옥균을 살해하였나(조재곤) ▲현준혁은 김일성이 암살하였나(이종석) ▲의혹 속의 육영수 암살사건(정춘식)

[논문서평] '선실력양성 후독립론'의 실상과 허상-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지수걸)

[해외학술논쟁] '프랑스혁명'과 농민 ▲프랑스혁명과 농민운동(아나톨리 아도) ▲아나톨리 아도의 논문에 대하여(알베르 소볼) ▲'프랑스혁명과 농민운동' 논쟁에 대한 소고(최갑수)

역사비평사 / A5신 / 414면 / 5400원

세계의 문학(1992년 여름)

[제16회 '오늘의 작가상' 발표] 살아남은 자의 슬픔(박일문)

[논문] ▲맑스주의의 새로운 출발(이진경) ▲발터 벤야민과 위기미학-벤야민 탄생 100주년에 부쳐(서규환)

[시] 신경림 / 정현종 / 이하석 / 황지우 / 박찬 / 광재구 / 안도현 / 박라연 / 이갑수

[계간비평] 오늘의 정치지형학-민주주의의

안과 밖(김성기)
[서평] ▲幻想 혹은 不敗의 眞書-이청준 「인간인」(양선규) ▲따뜻한 시선 냉정한 성찰-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생애」(김성렬) ▲포스트모더니즘적 민족주의와 뿌터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길-송두율 「전환기의 세계와 민족지성」, 한상진 「중민이론의 탐색」, 「한국, 제3의 길을 찾아서」(유팔무)
민음사 / A5신 / 384면 / 5000원

현대소설(1992년 여름)

[소설] ▲순분이(이혜숙) ▲패랭이꽃(정찬) ▲배꽃(이선) ▲꿈꾸는 우상(田裕文) ▲그리운 동방(김소진)

[새장편 연재소설] 망각(윤후명)

[한국의 작가] ①윤후명: 관능, 사랑, 죽음에서 윤희까지의 여행(김만수)

[자전적 사소설] 블루스 하우스(하재봉)

[외국의 현대소설] ①폴란드편 ▲현대 폴란드 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정병권) ▲종말적 위기인가 성장을 위한 시련인가(즈지스와프와 핀스키 / 정병권 옮김)

[제5회 현대소설 신인상 심사발표] ▲사막에서의 하루(김세연) ▲먼 하늘 가까운 사람들(이명인)

[“현대소설” 이론과 실제] 인종주의의 마지막 말(차크 데리다 / 문봉섭 옮김)

[한국소설사] ⑦김윤식, 정호용

[“현대소설” 작품론] 마음속 옳고 그름의 행방찾기-홍성원의 「먼동」(김외곤)

[“현대소설” 서평] 관념의 몸, 혹은 몸의 관념 만들기-이청준의 「인간인」(이경호)

[“현대소설” 칼럼] 자유주의의 계산장치(북거일)

현대소설사 / A5신 / 382면 / 5000원

